광주 개인소득 2053만원…전국 3위 '깜짝 상승'

통계청 2019년 지역소득

지난해 가계 구매력을 나타내는 1인당 개인소득 이 두 계단 '깜짝 상승'을 해 전국 3위에 올랐다.

경제성장률은 광주·전남 모두 전국 평균 (2.1%)을 웃돌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지역소득(잠 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개인소득은 광주 2053만2000원, 전남 1871만1000원으로 조사됐 다. 광주는 전국에서 서울(2344만원)과 울산 (2255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전남 은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186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작았다.

광주는 지난 2018년 5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3위 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2040만원으로, 서울은 평균보다 304만원 많고 광주는 13만2000원 많았 다. 최하위권을 나타낸 전남은 평균보다 169만원 가량 작았다.

광주 1인당 개인소득은 1545만원 8위 (2013년)→ 1623만원7위(2014년)→1746만원6위(2015년)→ 1823만원6위(2016년)→1893만원6위(2017년)→ 1987만원 5위(2018년)→2053만원 3위(2019년) 등을 나타내며 6년 만에 5계단 뛰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광주 1인당 개인소득이 크게 오른 데는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기도 했 지만, 지난해 세종 인구가 평균 증가율 0.2%를 뛰 어넘는 9%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세종 1인당 개

전년 대비 2계단 올라 전국 평균 넘는 경제성장률에 세종·경기 하락도 영향 미쳐 전남 1871만원 '최하위권'

인소득 변동이 크고 경기지역 가계 사업소득이 '마 이너스'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광주 순위가 올랐 다"고 설명했다.

1인당 개인소득은 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을 인구 수로 나눠 산출한다.

이 지표에 대해서 전남지역은 매년 '최하위'를 전 전하고 있다.

전남 1인당 개인소득은 1458만원 16위 (2013년)→1504만원 17위(2014년)→1607년 17 위(2015년)→1653만원 16위(2016년)→1704만 원 17위(2017년) 등으로 '꼴찌' 수준이다. 지난 2018년에는 1821만원으로 15위로 올랐지만 이듬

해 다시 한 계단 주저 앉았다. 지역총소득은 광주 46조원과 63조원으로 전국에 서 각각 14위, 10위를 차지했다.

전국 지역총소득은 1941조원으로, 지역이 차지 하는 비중은 광주 2.4%, 전남 3.3%이다.

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55.6%)이 넘는다.

전년 대비 명목 증가율은 세종(8.3%)이 가장 높 았고 전북(4.5%), 광주(4.1%)가 뒤를 이었다. 전 남 증가율은 0.1%로, 전국에서 15번째였다. 지역 총소득이 줄어든 곳은 경기(-0.2%)와 제주(-0.1%) 2곳이었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서 소득 5조원이 순유입됐 고, 전남은 14조원 순유출됐다.

물가 변화에 따라 조정되지 않은 명목 규모로 본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은 1924조원으로 1.1% 늘었다.

전체의 24.9% 비중을 차지한 경기(478조원)가 가장 컸고 세종(12조원)이 가장 작았다.

전남은 77조원으로 8번째로 많았고, 광주 지역내 총생산은 41조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작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GRDP는 1001조원으 로 전국의 52.0%를 차지했고 8대 광역시는 844조 원으로 43.9%를 차지했다.

1인당 GRDP는 울산(6535만원), 충남(5240만 원) 등이 컸고 대구(2374만원), 부산(2741만원), 광주(2755만원) 등은 작았다. 전국 평균은 3721만 원이다. 전남 1인당 GRDP는 4332만원으로 전국 에서 4번째로 많았다.

광주 성장률(실질 증가율)은 2.8%로 전년 (5%)의 반토막 수준을 나타냈다. 전남은 2.2%에 서 2.4%로 소폭 올랐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성장 률은 전국에서 각각 4위, 5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 균 성장률 2.1%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59.82 (+26.14)

코스닥 923.17 (-5.56)

금리(국고채 3년) 0.932(-0.013)

1107.90 (+0.50) 👚 환율(USD)

지역통계 개발·정책활용 호남통계청, 지자체 7곳 선정

전북 완주군과 곡성군, 나주시, 장흥군, 광 양시, 광주 광산구 등이 '2020년 지역통계 개 발 및 정책활용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2일 지역통계를 개 발하고 정책에 활용한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 ·발표했다.

호남·제주지역 45개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사례에는 전북 완주군이 뽑혔고, 제주도·곡성 군·나주시 '우수상', 장흥군·광양시·광주 광산 구 '장려상'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상은 호남통계청이 통계기반 지역정 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했다. 선정 된 지자체는 소정의 상금을 받았다.

곡성군은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홍보와 마을교류행사 등을 벌였고, 나주시는 전남 지자체 최초로 '여성통계'를 개발해 '안심 터치 스마트링' 사업을 벌였다.

광주 광산구는 여성통계를 활용해 '2020 광 산구 성인지정책'을 수립했다. 광양시는 청년 통계를 만들고 장흥군은 특산물 실태조사를 진 행하며 표고버섯과 한우 등 특산물 품질 차별 화를 꾀했다. 우수 사례집과 관련 동영상은 호 남통계청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홈쇼핑 런칭

27일 SK스토아 '렌탈 서비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렌탈 서비스 '또로로 로 서비스 렌탈'을 오는 27일 밤 10시 36분 SK스토아에서 홈쇼핑 방송을 한다고 23일 밝

또로로로 서비스 렌탈은 금호타이어가 합리 적 가격과 정기점검 등 안전한 운전환경을 제 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선보인 서비스다.

승용차용 소형차종부터 중대형차종, 스포츠 유틸리티차(SUV)까지 타이어 총 4본을 제휴 카드 사용시 최저 월 0원의 가격으로 빌릴 수 있다. 렌탈 기간은 24개월, 36개월이다.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타이어 위치교환 서비스, 휠 얼라이먼트 서비스 등 다 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타이어시장에 대응하고자 기존 타이어 판매사 업에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렌탈 서비스 를 준비하게 됐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손쉽게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성탄절 아동 소원 선물 ₩5,000,000

'광주은행 산타' 오셨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앞줄 오른쪽)은 지난 22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 서 지역 어린이 30명에 성탄 소원 선물을 주기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전했다. 이날 어린이 2명을 본점 'KJ베어스존'에 초청해 '크리스마 스 산타오셨네' 행사를 열었다. 〈광주은행 제공〉

한전 '나주 강소개발특구' 연구소기업 2곳 신설

2025년 매출 147억 목표

한국전력이 에너지 연구소기업 2곳을 '나주 강소 연구개발특구'에 새로 설립한다.

한전은 이 특구를 국내 최초의 공기업형 강소특 구 사업모델로 개발할 계획으로, 2개사의 오는 2025년 목표 매출은 147억2500만원에 달한다.

한전은 최근 이사회에서 에너지 등 분야의 연구 소기업 5곳 신규 설립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자본금 중 20% 이상을 직접 출연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

한전은 2018년부터 자사 개발기술을 에너지 분 야 벤처기업으로 상용화하는 연구소기업 설립 기관 으로 지정돼 현재 8개 연구소기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설립하기로 한 5개 연구소기업 중 2개사 는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자리를 잡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 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다.

www.gcdh.or.kr

나주 특구에 들어설 연구소기업은 ㈜G.guru와 ㈜한국에너지데이터이다.

㈜G.guru는 에너지 사용량 원격 자동검침 사업 을 추진하며 한전이 총 자본금 20억원의 24.7%인 4억9300만원을 출자했다. 핵심기술은 통합보안칩 (SoC) 제조 등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 요 소기술이다.

내년 관련 시장규모는 1500억원대로, 내년 매출 목표는 9억5000만원, 2025년까지는 106억2500만 원으로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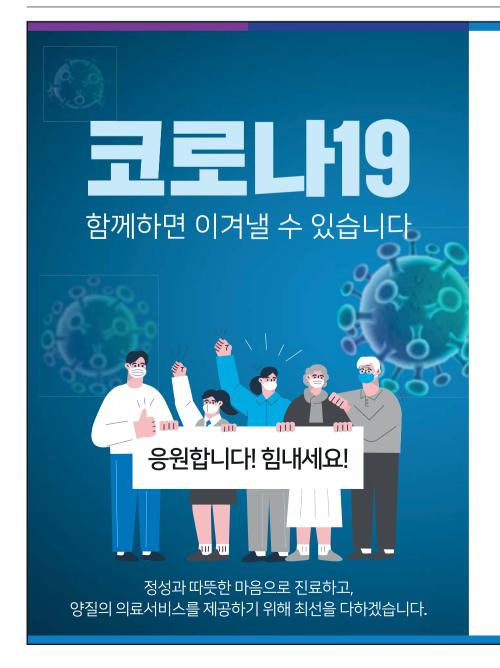
㈜한국에너지데이터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총 자본금은 2억 1000만원 가운데 한전이 6000만원(28.6%)을 출 자했다. 이 기업은 오는 2025년까지 2000억대 시 장점유율 1.9%를 목표로 하며, 5년 내 매출 41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 8월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와 나주 혁신산단 일원에 지정됐다.

한전은 이 특구를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서 창업·기술이전, 제품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 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사업화 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료법인 우암의료재단

우암의료재단에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한미소 고객을 위한 실천 💜 진료과목 ⊌·흉부외과 ■ 마취통증의학과
■ 신경과 (동광주IC 삼성홈플러스 맞은편) 대표전화. 260-7000 FAX. 260-7111

통합의료 복지서비스 선도로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기관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김 재 휴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표전화 062.602-6114 응 급 실 062.**602-6119**

www.ct119.co.kr



광주씨티병원 062.460-7000 응 급 실 062.**460-7119** 씨티재활의학과 요양병원 062.604-5000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9 (세정아울렛 옆) 대표전화 062.223-5824